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1)

< 2022. 11. 19.(토) 인문계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1)

[문제1] <제시문1>~<제시문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예술은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현실과 세계를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예술의 언어는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며, 현실의 숨은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의 깊이를 자각하게 한다.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대상의 변형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 가능성은 새 세계를 개시(開示)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보편성에 대한 예술의 대응 방식이 철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은 처음부터 보편성이나 전체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듯이 ‘미(美)’ 혹은 ‘인간성’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프로파간다 예술¹⁾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²⁾에서는 이를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작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옹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이념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버거운 것이다. 자유와 정의, 평등과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은 시종일관 반성되지 않으면 거짓이기 쉽다. 검토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보편성은 가짜이다. 참된 보편성은 개별적 경험과 특수한 사례의 지속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보편타당한 원리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의 갱신 가능성을 구체적 경험 속에서 늘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보편성의 검토 작업에서 예술의 위치, 역할, 메커니즘은 독특하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술은 개념적인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 천착하고, 둘째, 이를 보편성의 지평 안으로 유도하여 재해석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구체적 보편성 혹은 개별적 일반성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특히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이야말로 예술의 제1덕목이다. 이러한 밀착을 통해 예술은 흠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외면된 것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예술의 저항은 선언의 낭독이나 거리에서의 쫓기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며, 설명이나 진단 혹은 분석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식 또한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단순히 운명의 필연성에 복속되지 않고 그 나름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세하고도 오랜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실천적이지만 행동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성찰적이지만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심미적 개입은 사유와 실천 사이에서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밀착하는 가운데 부단히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운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행복으로 이끌고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작품을 놓고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진위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런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예술작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달리, 객관적 사실을 표상하거나 구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 예술작품에 대해 말할 때,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은 예술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

주1) 특정한 이념, 상징, 인물, 사건 등에 대한 표상을 남기거나 제작자가 의도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

주2)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현실을 형상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창작방법론

<제시문2>

예술작품이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하나의 형식이다. 이 추상화된 형식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형식을 단순히 추상적 도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형식은 표상적이고 재현적이며 함축적인 요소의 결합체이다. 형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술에 적용되는 의미가 풍부해지고 인간의 가치 위계에서 당연히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사회적 반응과 수렴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예술가는 예술 경향의 여러 갈래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을 통해 인성을 창조하며,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풀어보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현세의 이상향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모든 종류의 가치, 이를테면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 등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미적으로 관조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술이 인간의 모든 가치 영역을 표현하거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직접적인 혹은 특별한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언제나 고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게 해준다.

논술시험 (인문 1)

예술은 인간을 감성적,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자 예술은 독자에게 과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며,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위대한 소설을 읽었을 때, 훌륭한 연극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거나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관람한 후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가 뒤바뀌고 뒤집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느끼게 하며, 행위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게 한다. 예술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비단 문학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그림을 보았을 때, 멋진 무용을 구경했을 때, 훌륭한 음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작품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사물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신선하게 느끼며, 우리의 행위를 새로운 도덕적 척도에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시문3>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한다. 평화로운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고 상호 공경하게 하여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음악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여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동시키고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음악은 사람 각자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움을 지향한다. 이를 유가(儒家)에서는 예교(禮敎)와 악교(樂敎)를 통합하여 '예악교화(禮樂敎化)'라고 이른다. 예악(禮樂)은 사람들이 도덕적 선(善)을 성취하는 도덕 수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예(禮)는 이지(理智)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악(樂)은 감정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지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고, 감정은 화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는 인륜 관계를 구별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를 편안히 여기고 그 직분을 담당하게 하며, 음악은 집단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마음을 융합하게 만든다. 어느 학자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화합하며, 예는 인륜 관계의 차이를 구별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예악의 상대적 역할과 조화를 말한 것이다. 또 『예기(禮記)』에서는 "음악은 안에서부터 나오며, 예는 밖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와 악이 하나는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상호 조절하여 이지와 감정 모두 평정을 얻게 된다. "음악이 잘 통하면 원망이 없고 예가 잘 통하면 다툼이 없으니, 서로 양보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예악을 두고 한 말이다"라는 구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악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악의 효용을 의미한다.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극진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려 감정의 변화를 극진히 하는 것을 뜻하며, '성실함을 밝히고 허위를 제거하는 것'은 예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짓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음악이 행해지면 뜻이 맑아지고, 예를 닦으면 덕행이 이루어진다",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등의 말은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악이 나쁜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니 천하가 모두 태평해진다"라는 말은 예술이 결코 인간의 공동체적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삶을 인격적으로 고양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

<제시문4>

예술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질과 구상(構想)의 문제이다. 예술의 재료가 의미중립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우리는 예술의 재료와 이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구분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창조나 감상에 대한 관심은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바로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이 흥미나 감흥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관심이 사회의 규칙과 원리에 포함된다는 시각이나 이러한 원리를 예술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미적 창조와 감상 모두에 유해한 것이다. 미적 대상은 인식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성질 자체를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기쁨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양 있고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운문(韻文)의 수려함, 비유적

논술시험 (인문 1)

표현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구성의 탁월함 때문에 상찬을 받는다. 예술가의 창조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상업주의는 도구적 문화를 요구하며 예술의 유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음미되는 가치 자체만으로 예술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술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이다.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 세계는 과학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지만, 예술의 왕국은 '계산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예술은 매 순간 자기 충만성을 향유하게 하며, 경험을 생기 있게 하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기게 한다. 좋은 삶이란 경험의 매 순간을 풍부하고 정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야 말로 좋은 삶의 원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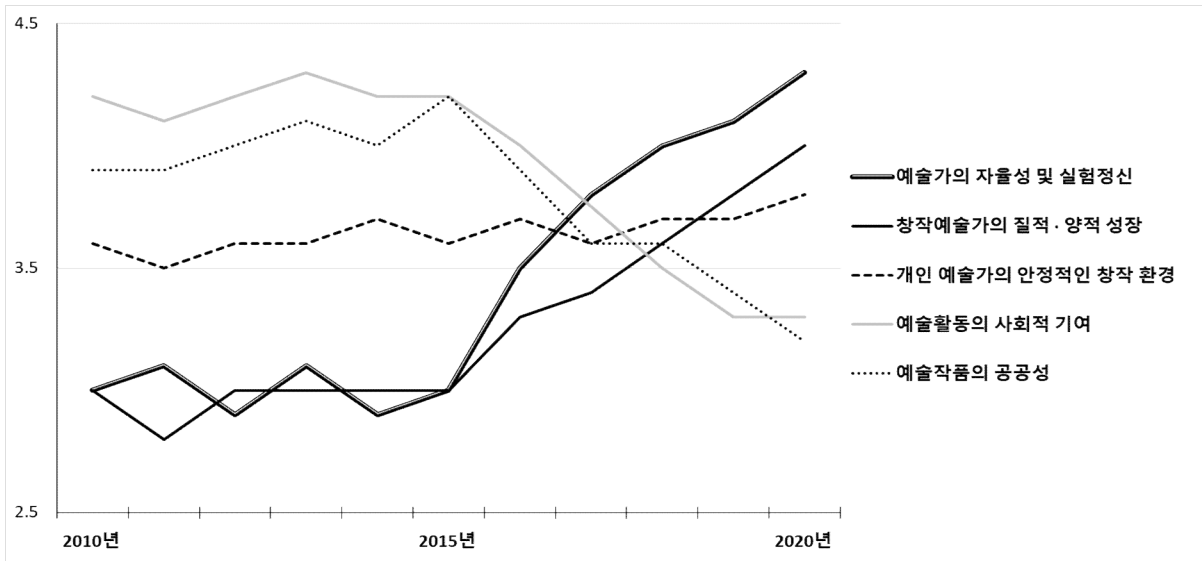
논술시험 (인문 1)

[문제2] <보기>를 읽고 [문제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자료1>~<자료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법령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 [문제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40점)

<보기>

A국은 국가예술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매년 문화예술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정부지원에 대한 가치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 A국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가통계도 추적·활용하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 전후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함)

<자료1> 문화예술영향평가 지표 결과



주3) 각 항목에 대해 1점~5점으로 평가함.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

<자료2>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예술인 인식조사 비교

설문항목: 국가예술지원사업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10년~2014년 평균]		[2016년~2020년 평균]	
응답	응답률	응답	응답률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28%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30%
관람객과의 교감	16%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18%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15%	자아성취감	15%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14%	안정적인 생활유지	12%
사회에 대한 공헌	10%	관람객과의 교감	11%
안정적인 생활유지	8%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7%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6%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4%
자아성취감	3%	사회에 대한 공헌	3%
합계	100%	합계	100%

주4) 인식조사의 표본은 매년 2만 명으로 동일함.

<자료3>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성과 비교

(단위: 횟수)

항목	2010년~2014년 평균	2016년~2020년 평균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	1,557	2,723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	734	496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	2,854	1,742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⁵⁾	532	729

주5) 국내 예술가가 해외 유명 미술관, 음악회, 공연 등에 초청된 경우를 말함.

논술시험 (인문 1)

[문제3] 한 설치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예술가들은 이 작품의 전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 하시오. (20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2)

< 2022. 11. 19.(토) 인문계 2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2)

[문제1] <제시문1>~<제시문4>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협력이 가능한 일반적인 요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협력은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호혜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국 서로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 때 협력이 가능하다. 그런데 도울 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협력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협력 덕택에 얻는 이득이 내가 협력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더 커야만 협력할 이유가 생겨서 상호 이득의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당사자 모두가 상호 협력을 상호 배반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는 않다. 다음 두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나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이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를 돕도록 유도하고 싶어 한다. 둘째, 나는 남에게 큰 비용이 드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모두 받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일단 한 집단 안에서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협력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비협력적인 전략도 침범하기 어려워져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협력이 배태될 수 있고, 온갖 다양한 전략이 뒤섞여 있는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으며, 또 일단 자리를 잡은 뒤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결과를 얻는데 개인이나 사회적인 환경의 특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은 논리적인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도 된다. 진화 과정은 성공적인 전략들이 자연적으로 번성하게 해 준다. 또한 개인은 서로 메시지나 약속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다. 말도 필요하지 않다. 행동이 말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인 사이에 어떤 신뢰도 필요하지 않다. 호혜주의만으로 충분히 배반을 비생산적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타주의도 필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전략은 이기주의자한테서도 협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협력의 창발과 성장, 유지에 꼭 필요한 개인과 사회 환경에 대한 가정이 몇 가지 있기는 하다. 우선 예전에 상호 작용했던 협력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상대와의 과거 상호 작용 내력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식과 기억의 요건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박테리아조차도 단 하나의 상대하고만 상호 작용한다거나, 단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의 가장 최근 행위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식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시킨다. 박테리아가 할 수 있으면 사람도 할 수 있다.

<제시문2>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이는 유효한 경쟁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이것이 개별적 노력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다. 나는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만약 경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경제활동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더욱 열등한 방법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경쟁을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사실,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며, 특정한 직업이 그 직업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경쟁을 사회 조직의 원칙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간섭을 배제해야 하지만 그 작동을 도와줄 수 있는 특정한 방식의 간섭은 인정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는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한 어떤 가격에서건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고, 팔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생산하여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논술시험 (인문 2)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적인 혹은 드러나지 않은 힘을 이용하여 이러한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을 법이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게 되면 각자의 노력을 유효하게 조정하는 경쟁의 능력은 박탈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가격의 변화가 변화된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가격의 변화가 더 이상 개인의 행위를 나타내는 믿을 만한 길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시문3>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과 바다 같은 공유 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공유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반면, 경합성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공유 자원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는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 자원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많이 소비하려고 경쟁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공유 자원은 쉽게 남용되어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고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일부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적 해법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장 걸맞은 자연스러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자연은 “적자생존” 혹은 “피로 물든 이빨과 발톱” 등으로 묘사되어온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상호 부조의 감정이야말로 수십만 년에 걸친 집단생활을 통해 그리고 지난 수천 년의 사회생활을 통해 배양된 것이며, “전쟁터에서처럼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상호 부조의 감정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기댈 수만은 없으며 적절한 유인이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적절한 제도란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개인을 외적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통해 서로를 규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은 협조하려는 상대방의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에 협조로 응답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다른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를 제어하려는 의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바다가재를 잡는 지역의 어부들은 바다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해냈다. 공동체를 결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다른 사람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이 사라졌고 결국 바다가재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만약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망을 제한했다면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부 어부가 경비정 몰래 바다가재를 제한 없이 잡다가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기 위해 그물을 끊고 도망가는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부들이 자율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조업이 자취를 감추었다.

공동체를 토대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는 낡은 이념으로, 다른 누군가는 유토피아적 이념으로 여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감시하고 상호 제재하는 것이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공동체 구성원은 외적 권위체가 갖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를 기초로 서로를 규제해가면서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4>

경쟁을 통해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기도 하지만 경쟁에서 진 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이란 본질적으로 ‘차가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경쟁관계의 두 기업이 일시적으로 협력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협력관계를 경쟁 속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역설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경쟁하다가도 경쟁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적 공급자로 위치가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협력을 도입하여 경쟁의 형태가 간접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른 두 기업과 각각 독립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여 양쪽의 파트너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 판매에서는 경쟁하지만 연구 및 개발에서는 잠정적으로 협력한다거나 아예 부서를 나누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협력을, 다른 부서에서는 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협력이

논술시험 (인문 2)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기술 혹은 산업간 융합이 일어날 때, 그리고 기업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 경쟁자와 협력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경쟁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독점보다는 경쟁 상황일 때 연구개발 등 혁신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할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회생활의 접촉대상이 되는 타인은 실재적 혹은 잠재적 경쟁 대상으로만 간주될 것이며 이러한 사고가 팽배할 때 휴머니즘을 토대로 한 사회적 친화력을 견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제사상가들은 경쟁이 국부의 증대에 기여하지만 사회적 동질성과 도덕을 잠식한다는 지적을 자주 해 왔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제기되는 과제는 한편으로는 경쟁의 기능을 계속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유발하는 비인도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황금의 중도’를 설정하는 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위시한 몇몇 서구국가들이 도입한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토대로 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하는 차가움이나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극소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과거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수정하여 안정과 형평 내지는 삶의 질을 조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국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출되는 다양한 갈등은 사회적 제어능력을 벗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존 원리로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휴머니즘을 기저로 하는 사회적 삶의 실존과 조화되는 규범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에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이익집단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견해·주장 등은 아마도 새로운 질서창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불가피한 진통일 것이다.

논술시험 (인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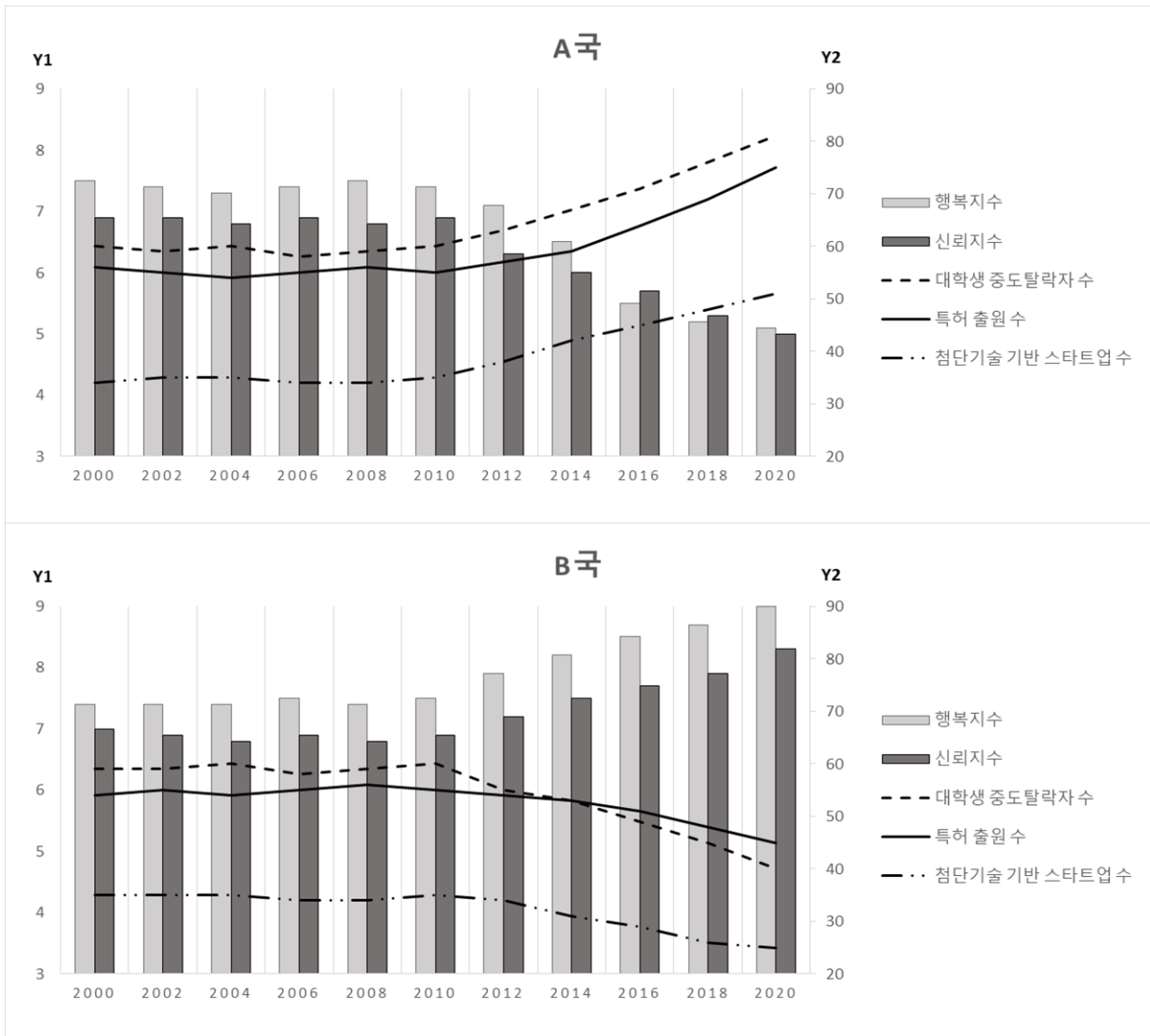
[문제2] A와 B 두 국가는 2010년에 대학교육제도의 개혁을 시행하였다. <자료1>은 제도 개혁 시행 시점과 시행 10년 후의 설문조사 결과이며, <자료2>는 대학교육제도 개혁 10년 전후의 사회 현상에 대한 자료이다.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국가 A와 B의 사례가 각각 [문제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자료1> 대학생 행동양식 설문조사 결과 (국가별 1,000명)

응답	A국		B국(%)	
	2010년(%)	2020년(%)	2010년(%)	2020년(%)
친한 친구들에게만 잘 답해 줄 것이다.	14.8	23.2	14.9	16.1
모두에게 잘 답해 줄 것이다.	50.0	28.3	51.0	71.2
누가 물어보더라도 잘 답해주지 않을 것이다.	35.2	48.5	34.1	12.7
계 (%)	100.0	100.0	100.0	100.0

주1) '다른 학생들의 학습 관련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에 대한 응답

<자료2> 사회현상 지표



주2) 행복지수: 전반적 삶의 만족도(국가평균값, Y1축)
 주3) 신뢰지수: 타인과 사회전반에 대한 믿음의 정도(국가평균값, Y1축)
 주4) 대학생 중도 탈락자 수: 대학생 천명당(Y2축)
 주5) 특허 출원 수: 단위 천개(Y2축)
 주6) 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수: 단위 천개(Y2축)
 주7)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

논술시험 (인문 2)

[문제3] C국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 성과를 평가하여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여론과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20점)